

Chapter 8. 갤럭시로 보는 세상

갤럭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터치 한 번으로 사진이 바뀌는 마법

일대 신드롬을 일으킨 후, 백 셰프들의 대결을 통해 음식 그리고 식도락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좋은 식당은 그 도시의 축소판과 같고, 잊을 수 없는 한 끼는 여행 전체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다. 식도락의 매력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낯선 음식을 경험하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약과 세금, 팁 문화 등은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들 중 하나다. 식당 주변 지리에 빠삭해지는 것은 물론 운 좋은 날엔 낯선 이들과의 추억까지 든든히 채우고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여행 중에는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 자연스레 갤러리에는 식당 그리고 음식 사진들이 그득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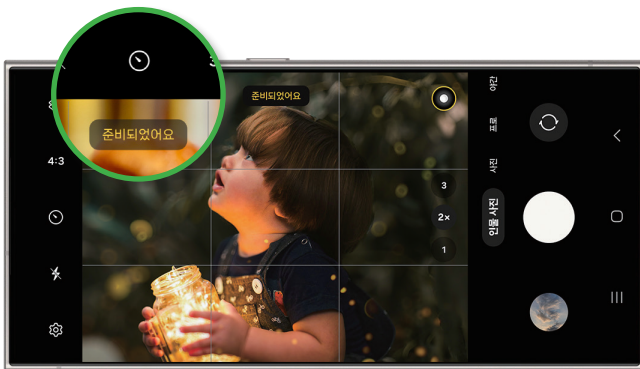
뉴욕을 여행하면서 뉴욕 최고의 햄버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동네 분식집 같은 식당에서 먹는 싸구려 치즈 버거부터 드라이 에이징 소고기로 만든 프리미엄 버거까지 80일간 다닌 식당이 50곳이 넘는다.

처음에는 기록을 위해, 나중에는 혼자 보기 아까운 이 여정을 콘텐츠로 연재해 보고자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이 때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소개한다. 터치 한 번으로 사진에 감성 한 방울 톡 떨어뜨릴 수 있는 마법 같은 기능이다.



심도의 미학, 인물 사진 모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다. 아름다운 인물 사진의 특징 중 하나인 배경 흐림(아웃 포커스, 블러) 효과를 더해 주인공인 피사체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 전문가용 DSLR 카메라로 찍은 듯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한 기능이 아닐까.



무엇보다 사용법이 간단하다. 촬영 화면에서 '사진' 탭 왼쪽에 있는 '인물 사진'을 터치하는 것으로 준비 끝. 이후로 원하는 장면을 평소처럼 촬영하면 된다. 카메라가 빠르게 화면 속 주인공을 포착해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만들 것이다. 이 효과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주인공과의 거리다. 약 30c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며 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면 촬영 화면에 '준비되었어요'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를 확인하고 촬영해야 최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촬영



인물 사진



일반 촬영



인물 사진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얻는 효과는 꽤나 그럴싸하다. 거리에서 찍은 인물 사진에서는 지나가는 행인들, 간판의 글자가 흐릿해지면서 주인공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촬영하면 얼굴이나 이목구비 등 특정 부분이 강조된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진다. 원근감이 부각돼 사진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다. 인물 사진 모드의 효과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려동물과 소지품, 갤러리의 작품, 오늘의 점심메뉴 등 평소에 찍던 것들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결과물은 아무나 찍어도, 누가 봐도 다르다.

블러 효과 & 필터 효과

우측 하단의 효과 버튼을 터치하면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도 조절로 블러 효과를 숫자로 제어할 수 있다. 숫자가 클수록 배경 흐림 효과가 크고 낮은 숫자로 설정해 줄이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기능은 화면 효과, 여섯 가지로 구성된 항목들은 주인공을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들거나 배경을 흑백으로 바꾸는 등 인물 사진 모드의 특징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피사체와 환경에 맞춰 사용하면 후보정 작업 없이도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감성적인 흑백 프사(프로필 사진)가 필요하다면 로우키 모노 효과를 적용해 보자. 전문 스튜디오 부럽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연시의 감성, 보케(빛망울) 효과

연말연시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조명 장식들은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다. 가로등이나 전구 등의 조명이 크고 동그란 보케로 표현되기 때문. 화려한 장식 앞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 적극 활용해보자. 색색의 보케가 주인공을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돋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블러 효과의 숫자를 높게 설정할수록 보케의 크기도 커진다.



일반 촬영



인물 사진



일반 촬영



인물 사진

인물 사진 vs 음식 두 기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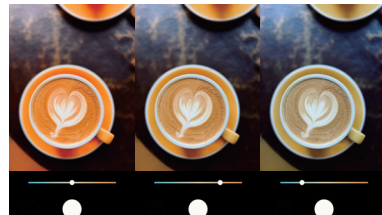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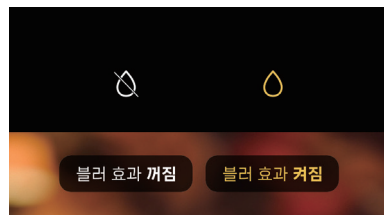
배경 흐림 효과를 활용한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음식 모드가 있다. 촬영 모드의 '더보기' 탭을 터치해 음식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 배경 흐림 효과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인물 사진 모드와 같지만 초점 영역 조절, 색감 변경 등 음식 촬영에 특화된 옵션이 추가됐다.

인물 사진 모드와 달리 촬영 화면에 사각형 프레임이 표시되는데 이 프레임의 위치와 크기를 바꿔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영역을 좁게 설정할수록 작게 썰린 재료, 접시 위 장식 등 특정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 담음새가 좋은 음식을 찍을 때 활용해 보자. 음식 전체를 선명하게 담고 싶을 때는 블러 효과를 해제하면 된다.



색감 조절 옵션은 음식 모드의 특화 기능이다. 촬영 화면 상단의 온도계 모양을 터치하면 촬영 버튼 위에 긴 막대가 표시되는데 왼쪽을 파란색, 오른쪽을 노란색으로 칠해 해당 효과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 원을 왼쪽으로 끌어 넘기면 화면 전체가 차가운 색감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따뜻한 느낌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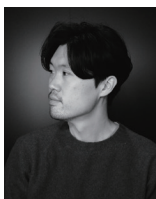
대부분의 음식 사진들은 따뜻한 색감으로 촬영했을 때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음식과 접시의 색상, 식당 조명을 고려해 색감을 조절해 보자.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도 후보정을 통해 색감을 바꿀 수 있다.





간단한 사용법과 매력적인 결과물. 그래서인지 스마트폰 사진 촬영 클래스를 진행할 때 인물 사진 모드에 대한 수강생의 호응이 가장 좋다. 간혹 실습 시간에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볼 때도 있는데 세대별로 이 기능의 쓰임새가 다른 것도 무척 흥미롭다.

청소년들은 힙한 간판이나 그래피티, 가지런히 디스플레이된 액세서리 등을 좋아하고 중장년 특히 어머니 또래의 수강생들은 대체로 길에 핀 꽃 한 송이를 주인공 삼아 사진을 찍어 온다. 나는 음식 사진에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올 연말 추억들은 인물 사진 모드로 담아보면 어떨까? 우리 집 감성 작가 타이틀을 획득할 수도 있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